

아동복지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趙南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5월

은 가정의 달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어린이 날’과 ‘아버지 날’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한다. UN은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해보게도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에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관심의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는 불우한 가정의 아동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와 가정의 핵가족화 추세는 비단 불우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의 시작은 아동복지에 있다. 아동복지를 굳이 정의하자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요보호아동은 물론 일반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및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활동’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과거의 아동복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전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아동은 향후 국가발전에 기여할 잠재인력으로서 미

아동복지정책의 주체는 정부와 민간 모두이며,
이들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 없이는
아동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

래의 주인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의 강구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아동복지 정책은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아동을 위한 정책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기능은 물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별거·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 성 개방 풍조가 빚어낸 미혼모의 증가,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 그리고 일탈청소년의 급증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의 구축과 사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보호에 있어서는 특히 아동의 기본적 욕구와 이를 충족시킬 부모 및 국가의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결손가정의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손가정이 주로 부모의 이혼·별거·사망·자녀유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속해 있는 아동에게는 경제적·정서적으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셋째, 결식아동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 이후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의 수가 이미 1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63%가 초등학생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과 사회의 학대·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아동 학대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최근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방임 및 유기 등 정서적 학대가 빈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성인의 아동 성폭력 등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지역사회-국가’ 모두의 의지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의 주체는 분명 정부와 민간 모두이며, 이들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 없이는 아동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

자칫 무시되기 쉬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소외된 아동들이 더없이 높고 맑은 하늘 아래서 희망찬 장래를 꿈꾸며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